

숨은그림찾기 < 56 >



찾아(아)보(세)요 음표, 고추, 열대어, 갈매기, 셔플록, 상어, 우산, 우유팩, 펜촉

여보, 저예요!

어떤 부인이 은행 출금기에 가서 수표를 바꿔 달라고 했다. 은행직원이 부인에게 말했다.

“수표 뒷면에 성함과 전화번호를 적어주세요.”

부인은, “수표 발행자가 바로 제 남편이란 말예요.” “네,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수표 뒷면에 이 수표를 누가 현금으로 바꿔 갖는지 아시게 됩니다.”

그제서야 알아들었다는 듯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표 뒷면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여보, 저예요!”



지난주 정답

다리미, 양주잔, A자, 못, 고추, 펜촉, 음표, 점자리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 ▲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 당첨자: 김애순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위혜숙 <광주시 서구 금호동>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20일 '세기의 연인' 오드리 헵번 사망

커다란 눈, 사슴같이 긴 목과 새골뼈, 쇼트컷 헤어스타일. 그리고 유니세프...

영화 배우 오드리 헵번을 떠올리면 얼른 생각나는 이미지들이다.

지난 1929년 5월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태어난 헵번은 22살인 1951년 영화계에 데뷔, 1953년 로마의 휴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과 함께 각광받기 시작했다.

이후 '사브리나(1954)', '전쟁과 평화(1956)', '티파니에서 아침을(1961)', '마이 페어 레이디(1967)' 등 작품을 통해 최고 인기 배우로 뽐냈다.

1929년 벨기에 브뤼셀서 탄생

'로마의 휴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은막보다 더 아름다운 봉사인생

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특히 그의 쇼트컷트 헤어스타일은 전세계 여성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졌다.

지금도 그를 광고 모델로 재등장시키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지난해 할리우드 여배우들이 즐겨 입는 패션 코드도 오드리 헵번이 펼친 것이다.

특히 영화계를 떠난 뒤 5년 동안 '봉사'와 '희생'으로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모금 활동을 벌였다는 점은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면서 '단인의 연인'이라는 명성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는 지난 1988년 유니세프의 친선대사 역할을 맡은 뒤 소말리아·에티오피아·수단·방글라데시·베트남·멕시코·엘살바도르 등 50개국이 넘는 나라를 방문, 전쟁과 굶주림에 지친 아이들을 돌봤다.

사랑하기 일년 전 크리스마스에 아들에게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네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라고 한 말은 유명하다.

은막에 비취진 모습보다 더 아름답고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그는 지난 1993년 1월 20일 장막과의 오랜 투병 끝에 스위스에서 사망했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 스타를 비롯한 유명 연예인들. 병역 비리나, 폭력, 도박 등 부정적 이미지 대신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오르내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뉴스퀴즈

47.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9일 특별 단회를 통해 개헌을 제안하면서 대선 정국에 파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현행 대통령제 임기를 바꾸자고 밝혔는데, 지난 87년 개헌 이후 20년 만에 권력구조 개편이 본격 추진되는 점에서 헌정 질서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은 현행 대통령 임기를 어떻게 바꾸지는 것인가요.

- ① 4년 연임제 ② 5년 단임제
③ 7년 단임제 ④ 8년 연임제

참어 병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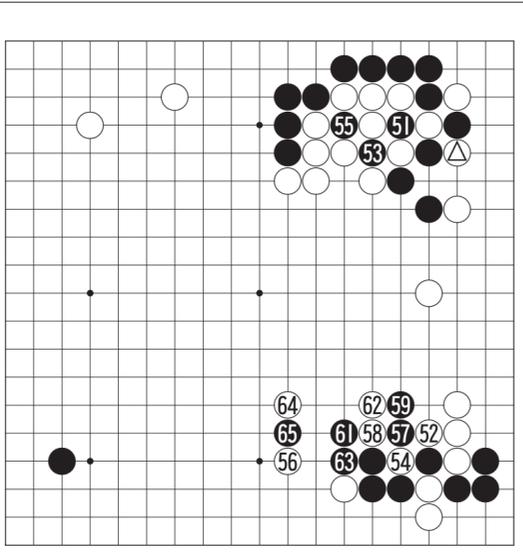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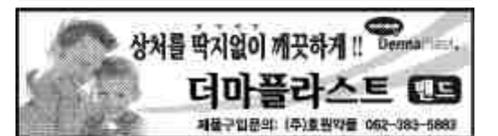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7일(음 11월 29일 辛亥)

Table with 12 rows of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of January 17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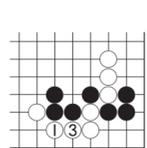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제요외

전날밤도지사배 바둑대회

최강부 결승



<참고도>

어 백 5로 돌아 천지대패를 걸어간 장면이다.

김종민 6단은 우하귀에서 손해를 보기 싫어 실리를 챙기는 했지만 그 대가로 절대패감이 여러개 생겨났다.

각오는 했지만 상대가 막상 패를 걸어오자 난감하다. 이 패는 저서는 안되는 천지대패다.

실패한 바둑치기 5보(51~65)

白 홍석의 6단 <목포시> 黑 김종민 6단 <해남군>

우하귀에서 사전공작을 펼쳐서 절대 패감을 만드는 데 성공한 홍석의 6단이 드디어 백 5로 돌아 천지대패를 걸어간 장면이다.

김종민 6단은 우하귀에서 손해를 보기 싫어 실리를 챙기는 했지만 그 대가로 절대패감이 여러개 생겨났다.

각오는 했지만 상대가 막상 패를 걸어오자 난감하다. 이 패는 저서는 안되는 천지대패다.

바둑소식

박지은, 정관장배 탈락

박지은은 6단이 16일 한국기원 바둑 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5회 정관장배 여자바둑최강전 2차전 제8국에서 중국의 정연 2단에게 253수 끝에 백 2집반 패했다.

전날 일본의 만나미 카나 3단의 4연승을 저지했던 정연 2단은 이 대국 승리로 2연승을 질주했다.

한국은 정관장배에 출전한 5명 가운데 이민진만을 제외하고 모두 탈락했다. 이민진이 18일 대국에서 패배할 경우 차기대회를 기약해야 한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각각 3명의 기사들이 남아 있어 이 대회가 양국의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821> 오하이오 니혼고 <821> 니하오 쑹구위 <12> 한자 이야기 <439>

English section: I wonder if ~ 혹시 ~ 인가요? A: There is water all over the floor here. B: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A: I'm not sure. It looks like the dishwasher overflowed. B: I wonder if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the drain.

Japanese section: 危(あぶ)ないな 위험하군 A: 何か焦臭(こげくさ)くない? B: あっ、いけない。味噌汁(みそじる)の鍋(なべ)をガスにかけっぱなしにした。

Chinese section: 过年好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A: 过年好, 祝你新年好! yéguó hǎo, zhù nǐ xīn nián hǎo

Reading section: 讀書三餘 (독서삼여) 읽을 독, 글서, 석삼, 여가여 독서삼여(讀書三餘)는 줄여서 '삼여(三餘)'라고도 하는데, 책을 읽기에 적당한 세 가지 여(餘暇)를 말한다.